

20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201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일간지

〈니키타〉 배우 안느 빠리요

〈사랑의 불시착〉 세르히오 산체스 감독

〈중독노래방〉 김상찬 감독

짧은 영화,
긴 여운
단편영화의 힘

2016.07.28

THU

08

시네마

Meet the original



ほろよい
— 호로요이 —

2016년 이마트 중동점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마트 중동점 신규 입점 전문관 안내

전문관	이미지	해당층	오픈일정	전문관 설명
일렉트로마트		1층	10월 중	국내 최대규모의 체험 테마형 가전 전문점 가전, 완구, 피규어 전문존, 드론 체험존, 스포츠 등의 체험 박람회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마트 최대 야심작 통합형 가전매장
몰리스펫샵		1층	10월 중	반려동물이 한 가족이 되는 토탈 솔루션 전문점 여러 종류의 애견용품과 각종 동물분양, 애견미용, 애견카페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반려동물 대형 원스탑 멀티샵
스타벅스		1층	10월 중	1971년에 설립한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문점 커피를 비롯해 차, 주스, 디저트를 판매함
데이즈샵		지하1층	OPEN	이너웨어, 잡화류, 일반의류 등을 최상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맞춘 이마트 자체 패션브랜드 멀티 의류샵
피코크키친		지하2층	17년 1월	이마트 가정간편식 브랜드. 피코크의 제품구매와 식음을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식문화 리테일 매장
e 베이커리		지하2층	9월 중	트레이더스 스타일의 신규 베이커리 매장
문화센터		3층	11월 중	학기별 다양한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 할 수 있는 이마트 문화센터

※ 상기 오픈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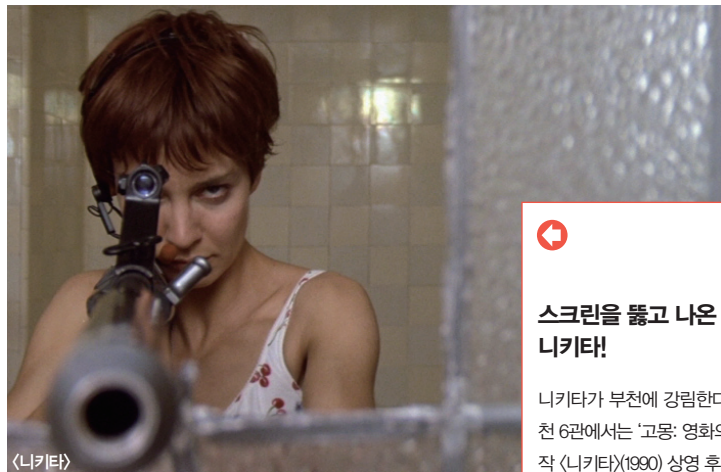
BIFAN BOARD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4 ————— 5



'환상영화학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인 선댄스영화제 프로그래머 찰리 레프.



〈니키타〉



스크린을 뚫고 나온 니키타!

니키타가 부천에 강림한다. 7월28일 오후 8시 CGV부천 6관에서는 '고몽: 영화의 탄생과 함께한 120년' 상영작 〈니키타〉(1990) 상영 후 니키타 역을 맡은 안느 빠리요가 참석하는 메가토크가 열린다. 안느 빠리요는 〈니키타〉로 제16회 세자르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거품난 프랑스 배우다. 1990년대를 풍미한 액션 스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환상영화학교의 의미있는 마침표

7월2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에서 '환상영화학교 공개피칭'이 열린다. 총 8일간의 커리큘럼을 소화한 참가자들은 여섯 개 팀으로 나뉘어 '환상영화학교 2016' 기간 동안 설계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피칭 행사가 끝난 후에는 수료식이 이어진다. 존 하인슨, 찰리 레프, 저스틴 디먼, 유키 키토 등 강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BIFAN의 미래를 빛낼 청년 감독들

청년 영화감독을 탄생시키기 위한 피칭 프로그램 '청년감독 발굴 프로그램: 내일을 향해 쏴라!'가 열렸다. 7월27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에서 열린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5인의 청년 감독(김상일, 박기범, 유재현, 정승민, 조지훈)의 개성 넘치는 피칭이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강성규 산업전문위원은 "영화제에 생긴 최초의 감독 세일즈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강승요.



김재인.



세계로 향하는 배우들의 도전

해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연기자들을 위한 오디션 '케이스타 쇼케이스'가 열린다.(공동주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경기예고 내 경기아트홀에서 7월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중국의 영화 및 TV시리즈 캐스팅 담당자들과 글로벌 캐스팅 디렉터가 사전심사를 맡았으며 선발된 연기자들은 오디션 후 캐스팅 기회를 얻게 된다.



〈이도공간〉



장국영을 추억하다

장국영의 마지막 영화 〈이도공간〉(2002)의 스페셜 토크가 열린다. 7월28일 오후 2시30분, CGV부천 5관에서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 상영작 〈이도공간〉과 단편 〈열 개의 계단〉(2004) 상영 후 〈이도공간〉을 연출한 나지람 감독이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장국영을 추억하며 세기말 홍콩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말.말.말

“모리타 고의 ‘멋짐’을 봉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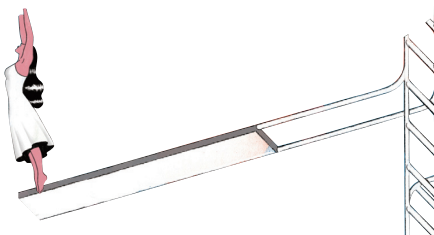
〈낮비〉 GV 중 요시다 케이스케 감독, 자니스 아이돌 V6의 멤버 모리타 고가 지나치게 멋지게 나와서 힘들었으며.

“지금 발리우드는 서커스장이다. 그 점을 고발하고 싶었다.”

〈오토헤드〉 GV 중 로힛 미탈 감독, 인도 영화계에 대한 비판을 작품 속에 녹여낸 이유를 묻자.

“영화 현장에서까지 판타스틱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마련한 자리다.”

〈열린토론: 영화스태프의 새삼스런 커밍아웃, 우린 근로자다!〉 중 안병호 영화노조 위원장, 현장 스태프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



20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08

2016.7.28

EVENT

16:00 U-Plex 중앙광장

무브먼트 - 낭만이다

19:00 CGV부천

무브먼트 - 이매진

20:00 CGV부천 6관

메가토크 - 안느 빠리요와의 만남.

〈니키타〉 상영 후 진행

표지사진 오계욱

발행인 김충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송경원 윤혜지

객원기자 김수빈 김은솔 이호준

사진 오계욱 권영탕

디자인 김은 김지원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

전화 032-327-6313

팩스 032-322-9629

씨네2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 구독문의

1566-9595



스위스 아미 맨

SWISS ARMY MAN

다니엘 웨이너트, 덴 칸 | 2016년 | 97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내 인생을 구하려 온 나의 시체! 기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감동까지 접합시킨 수작.

무인도에 갇혀 더 이상 살아갈 의지를 잃은 청년 행크(폴 다노). 모든 걸 포기하고 목을 매 자살하려던 순간, 그의 인생은 갑자기 떠나려 온 '시체 한 구'로 180도 달라진다. '부패해 몸속에 가스가 차 있는 건지' 방귀를 뽕뽕 끼고, 가슴을 누르면 소금기 없는 식수를 뿜어내는

를 '스위스 아미 맨'으로 명명하고 함께 지내며, 고립된 생활에 활력을 되찾는다.

드라마로만 풀자면 배구공 율슨과 소통하며 무인도의 삶을 버텨가는 <캐스트 어웨이>(2000)같은 휴먼 생존 드라마가 떠오르지만, <스위스 아미 맨>의 결은 그보다 독특하고 기상천외하기 그지없다. 방귀의 추진력을 이용해 제트스키가 되거나, 수도처럼 식수를 팔팔 쏟아내고, 포탄을 발포하는 무기가 되는 매니의 활약은 시작부터 관객의 혼을 모조리 빼놓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기막힌 웃음 뒤에 오는 감정의 파장이 더 크다. '배고파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라는 행크가 매니의 기이함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결국 외롭게 살아온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우정의 연대기가 영화의 대미를 장식한다. 행크의 혼란을 표현한 폴 다노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한 '시체'를 연기하겠다고 나선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돌기' 충만한 도전까지, 두 배우의 활약이 독특한 영화에 찬란한 빛을 더한다. 대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뮤직비디오를 연출해 온 두 감독 다니엘 웨이너트, 덴 칸의 공동연출작으로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화제작이다.

이화정



장강도

CROSSCURRENT

양 차오 | 중국 | 2015년 | 116분 | 부천 초이스: 장편



리자의 달콤살벌한 연애

LIZA, THE FOX-FAIRY

칼로이 우이 메자로스 | 헝가리 | 2015년 | 108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온 세계 텍스트를 혼합한 독특한 동화. 천생연분을 고대하는 리자(모니카 발사이)에게 벗이라고는 일본인 가수 유령 토미(사쿠라이 데 이비드)뿐이다. 간호사인 리자는 일본 문화에 매

료된 마타 부인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들며 그녀로부터 얻은 한권의 일본 로맨스 소설을 부적처럼 품고 산다. 토미의 존재를 안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토미는 리자의 곁에 자신 외의 남자가 머물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리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남자들을 사고를 빙자해 살해한다. 리자 주변에서 술한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의아하게 여긴 탐정 졸탄(베데-파제카스 서 볼치)은 리자의 집에서 숙식하며 사건을 추적해나간다. <리자의 달콤살벌한 연애>는 <신데렐라> 스토리와 <우렁가시> 설화 위에 동유럽식 앤티크 비주얼을 덧입히고 일본의 고전설화, 미국의 대중문화까지 접붙인 혼합적 텍스트인데 그 황당무계한 조합이 제법 근사한 균형을 이룬다.

윤해지

마크 리핑빙이 필름으로 촬영한 장강의 이미지들! '시간의 흐름은 물과 같으니 밤낮도 없이 흘러가는구나.'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시구를 그대로 가져와 장강을 무대로 한 120분의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영화가 될 것이다. <장강도>는 세월과 기억, 잃어버린 것과 잊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한 편의 시와 같은 영화다. 고향으로 내려온 까오 춘(진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화물선의 선장이 된다. 까오 춘과 함께 하는 건 전통에 따라 아버지를 대신할 물고기과 전 선원이 남긴 걸로 보이는 시집이다.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물건 배송을 하던 중 의문의 여인 안 루(신지뢰)를 만난 까오 춘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상류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존재들이 신기루처럼 하나씩 사라지고 중국엔 까오 춘 혼자 남는다. 생략과 암시가 빈번한 이 서사를 시간 순서대로 쫓으면 금세 길을 잃고 말 것이다. 필름으로 찍은 고집스런 화면의 질감과 장강의 아스라한 풍경을 일단 느끼길 권한다. 삼협댐 건설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애도의 시이자 점차 희미해져가는 중국 작가주의의 유물 같은 영화다.

송경원



소곤소곤 별

THE WHISPERING STAR

소노 시온 | 일본 | 2015년 | 100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소노 시온이 그린 디스토피아. <소곤소곤 별>은 소노 시온 감독이 그린 SF물이 다. 인간이 멸종 위기에 처한 미래, 로봇 스즈키 요코는 우주선을 타고 행성 곳곳에 물건을 배달

한다. 스즈키는 마지막 업무를 위해 인간이 지배하는 최후의 행성으로 향한다. 그곳 주민들에게 30대시벨 이상의 소리는 치명적이다. 양치를 하고 차를 끓이고 빨래를 하는 식의 지극히 일상적인 우주선 내부 생활과, 폐허 속에서 주인공이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일본 가옥을 연상케 하는 배경은 기존 SF물의 공간과 사뭇 동떨어진 느낌이다. 게다가 흑백 화면과 장르의 결합이 묘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폐공장, 폐역, 폐해수욕장까지, 영화에 담기는 행성의 풍경은 실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인근의 무인지대에서 촬영했다. 제목처럼 모든 대사가 소곤거림으로 이뤄져 있고 이따금 들리는 클래식 음악이 감흥을 북돋운다.

김수빈 객원기자

赤堀雅秋

〈카츠라기 살인사건〉아카호리 마사아키 감독

“끝사나운 인생들을
사랑한다”

〈카츠라기 살인사건〉은 아카호리 마사아키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연출작이다. 카츠라기 가족을 찾아온 불행을 통해 폭력의 전이, 사형제도의 모순을 차갑게 고발하는 작품이다. 아카호리 감독은 친구들과 만든 극단 '샴푸 햇(THE SHAMPOO HAT)'에서 연출가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카츠라기 살인사건〉은 극단의 동명 연극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전작 〈그 밤의 사무라이〉(2012)도 극단의 동명 연극을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다.

연극을 지속적으로 영화로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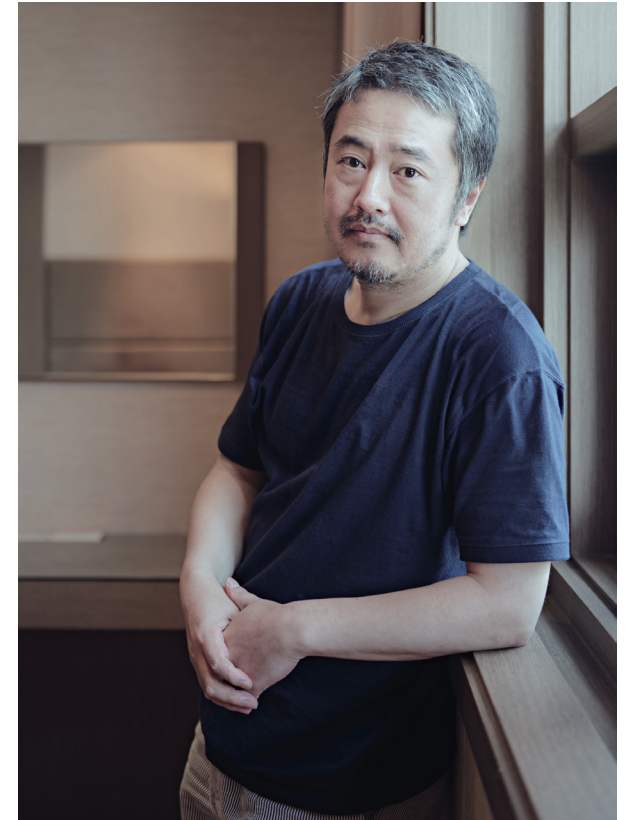
우리 극단의 연극을 보러 왔던 한 영화 프로듀서가 우리 연극을 영화화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각본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연극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연극을 왜 영화로 만드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나는 연극과 영화의 차이를 의식해본 적이 별로 없다. 누구는 '너무 영화 같은 연극을 만든다'고 야유를 하고, 누구는 '너무 연극 같은 영화를 만든다'고 야유를 하더라. (웃음)

론테이크로 촬영된 장면들, 가령 노래방 장면이나 밥 먹는 장면은 연극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영화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바꾼 것은 없다.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듯 연기해 달라고만 배우들에게 부탁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노래방 장면이나 밥 먹는 장면은 대체로 내가 만든 다른 연극에도 많이 나온다. 자기가 뭘 하는지 의식하지 못한 때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사랑스러워 애정을 느낀다.

뺨소니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그린 전작 〈그 밤의 사무라이〉와 〈카츠라기 살인사건〉을 나란히 놓고 생각하면 당신은 죄의 전이, 폭력의 파급효과로 인간의 외로움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지 질문을 들으며 깨달았다. (웃음) 반드시 고통과 절망의 감정을 그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훌륭하고 멋진 인간보다는 끝사납지만 바닥을 기면서라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인생에 관심이 많기는 하다. 이번 영화에서도 기묘시만 나쁜게 아니다. '악의 없는 악'이



랄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엄마도 책임이 있다.

독선적인 가장 카츠라기 기요시를 연기한 미우라 토모카즈는 보통 부드럽고 멋진 역으로 잘 알려져 있던 배우라 이번 역할이 의외였다.

일본에선 '잘생긴 국민배우'로 통한다. 그냥 잘생긴 배우였던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역할을 맡으며 무척 매력적인 배우가 됐다. 가장 큰 매력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얼굴이다. 그러면 이 복잡한 아버지의 다면적인 모습을 잘 보여줄 것 같았다.

전작에도 출연한 아라이 히로후미를 집안의 균열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로 캐스팅했다.

사적으로도 가장 친한 배우다. 그는 폭력적인 인물을 연기한 경우가 많다. 좀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나. (웃음) 하지만 운운하고 무력한 캐릭터도 그에게 잘 어울릴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나는 그의 배려심 깊고 유약한 내면을 잘 안다. 예상대로 완벽하게 잘 해내줬다.

극단의 설립 취지와 비전에 대해 알려달라.

시작은 상당히 저질스러웠지만... (웃음) 우린 영화에도 출연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오디션만 보면 낙방을 했다. 그래서 극단을 만들어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는 게 비교적 장벽이 낮을 거라 생각했다. 제작비 필요없이 극장 임대료만 내면 되니까. (웃음) 비전이라.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내 대답이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웃음) 비전을 모색해 나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닐까 싶다.

글 윤해지 · 사진 오계욱

Anne PARILLAUD

〈니키타〉배우 안느 빠리요

“니키타는
내게 최고의 캐릭터였다”

니키타가 돌아왔다. 〈니키타〉(1990)의 배우 안느 빠리요가 특별전 '고몽: 영화의 탄생과 함께한 120년' 중 〈니키타〉의 상영 기념으로 부천을 방문했다. 릭 베송 감독의 수작 〈니키타〉는 전 세계의 모든 '소녀 누아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주인공 니키타는 '소녀 병기'의 원형으로 등극했다. 물론 안느 빠리요에게도 배우로서의 삶에 중대한 이정표가 된 작품이다. “니키타는 내가 맡았던 역할 중 최초로, 가장 많은 감정적 스펙트럼을 거친 캐릭터였다. 사회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인물에 대해 나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도 내게 니키타 이상의 캐릭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다”며 여전히 창작의 모험을 거듭하는 중인 안느 빠리요는 “배우란 현실에서 벗어나 창의를 표현하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 내 육체를 통해 온 그 일을 이제 원가를 만드는 일로써 해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1960년 파리에서 출생했고 발레를 전공한 안느 빠리요는 〈베이비색 사

랑〉(Un amour de sable, 1977)에서 단역 '아기 고양이를 안은 소녀'로 데뷔했다. 그 뒤 청춘영화 〈바람난 계집애들〉(1980)에서 친구를 위한 용감한 소녀 캐서린을 연기해 주목받았다.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녀는 〈니키타〉로 1991년 세자르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현재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남녀가 사랑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방법을 깨달아 간다는 내용의 소설을 쓰고 있다”는 안느 빠리요. 소설쓰기는 그에게 “삶의 새 장”을 여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살을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사랑하며 산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소설 속 연인의 사랑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일으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영원한 소녀, 니키타의 다음 장을 기다린다.

글 윤해지 · 사진 오계욱



멕시코 사회를 비판하다

〈사랑의 불시착〉세르히오 산체스 감독

〈사랑의 불시착〉은 한 여자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엉겁결에 차기 대권주자가 탄 비행기를 납치한 청년의 소동극이다. 반군으로 규정되어 군대와 대치하는 대학생 청년 미치의 고군분투기에 1969년 멕시코 정부가 행한 좌파 학생 탄압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세르히오 산체스 감독은 멜로와 블랙 코미디, 납치극 등 다양한 장르를 엮어 이야기를 전개한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대권주자의 안위를 지키고자 비행기에 충격을 가하는 장군의 모습에 블랙 코미디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다. “영화는 6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멕시코 군대의 충구는 지금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국민을 향하고 있다. 그 분위기를 반영하고 싶었다”며 정부를 향한 냉소적 시선을 드러냈다. “멕시코 거리의 낙서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랑이 있다’는 글귀가 있다. 가장 순수한 감정인 사랑은 나쁜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랑을 계기로 가슴 속에 혁명의 불씨를 지니게 되는 미치의 변화를 통해, 감독은 “그럼에도 이 사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나는 반군이 아니다’라는 뜻의 원제 〈I’m Not a Rebel〉를 대신한 제목이 〈사랑의 불시착〉이다. 그는 “좀 말랑말랑한 제목이지만 관객들이 영화에 더 흥미를 갖게 되어 만족한다”고) 〈사랑의 불시착〉은 그의 세 번째 장편 연출작이다.

글 이호준 객원기자 · 사진 권영랑



“중독의 극복을 통한 미래를 그리고 싶었다”

〈중독노래방〉김상찬 감독

손님이 없는 한적한 노래방 주인 성욱(이문식). 늘어가는 빚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나주(김나미)와 하숙(배소은)을 도우미로 고용한다. 셋은 각각 돈, 아동,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각자의 고통으로 중독자가 된 사람들의 극복기를 그린 〈중독노래방〉은 〈복면달호〉(2007)를 공동 연출한 김상찬 감독의 두 번째 영화다. 영화는 박지홍 작가의 시나리오를 각색하여 만들어졌다. 코믹 드라마였던 전작에서 벗어나 살인사건과 같은 스릴러적 요소가 가미됐다. 김상찬 감독은 “살인사건이 벌어지지만, 원작의 어두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엔딩을 밝게 수정했다”고 말한다. 덕분에 스릴러의 바탕 위에 코믹한 기운을 넣어 미묘한 분위기의 영화가 연출되었다. “이 영화에서 표현된 중독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영화를 통해 슬픔을 안고 고통 속에서 삶을 살기보다, 극복을 통해 즐거운 미래를 그리는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한다. 인물들의 어두운 심리를 대변해 줄 영화의 주요 공간인 노래방 묘사는 특히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법한 여관 분위기의 독특한 미술에 대해 김상찬 감독은 “연극 무대처럼 한정적인 공간에서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전한다. “휴먼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그는 “앞으로도 블랙 코미디가 가미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글 김은솔 객원기자 · 사진 권영랑



짧은 영화, 긴 여운

단편영화인들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 ‘단편영화의 밤’

7월26일 오후 10시40분 부천시청역 ‘리듬앤부스’에서 ‘단편영화의 밤’이 열렸다. BIFAN에 초청된 단편 작품의 영화인들이 한데 모여 파티를 즐기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영화제에서 가진 단편영화의 GV 행사를 엮은 영상이 상영되기도 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해와 단편을 프로그래밍한 김세윤 프로그래머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기존에는 단편영화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이 행사가 하나의 선례가 되어 비슷한 취향을 가진 감독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추후 영화제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편영화의 강화와 섹션의 세분화는 올해 BIFAN이 특히 주력한 부분이다.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과 ‘패밀리 존: 키즈 애니 모음’ 부문이 신설되어 다양한 단편들을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은 예심을 통해 국내 판타스틱 단편 6편을 선정하여 작품상과 관객상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수상작은 폐막식 행사에서 발표되며 작품상에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올해 한국 단편 공모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난해 724편에서 841편으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모 이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수치다. 출품된 단편들의 경향에 대해 김세윤 프로그래머는 “외국 단편은 주로 스릴러, 호러 등의 장르성이 짙은 작품이 많았고, 한국 단편은 취연, 왕따, 갑질 등의 소재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작품이 많았다”고 평가한다. 김세윤 프로그래머는 “영화제 이후에도 단편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여건이 된다면 포털 사이트와의 연계 등을 통해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단편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IFAN에서 본 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길 기원해 본다.

글 이호준 객원기자



그들 각자의 판타스틱한 순간들

단편영화 감독들에게 물었다

〈안 죽을지도 몰라〉
이원근 감독

BIFAN에서 즐거웠던 기억은?

단편영화는 짧고 보잘 것 없는 순간에도 풍부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다. 단편영화제가 아닌데 단편영화인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어 줬다는 게 감사하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 좋았다. 단편영화는 좀처럼 평가 받을 기회가 없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

〈거미줄〉
정시은 감독

당신에게 BIFAN이란?

‘판타스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영화제다. 단편영화를 찍지만 많이 보진 못했다. 이번에 원 없이 봤다. 행사나 이벤트도 많아서 매일 영화제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웃음)

〈악마를 보았다〉
김기범 감독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신의 한 수가 아닌 악마의 악수를 둔 게 하나 있었다. 영화에서 세 탈주범이 초등학교생의 옷을 빼앗아 입는다. 여름에 촬영해서 시원하고 좋았는데 한겨울까지 찍게 되는 바람에 정말 얼어 죽을 뻔 했다.(웃음)

〈나무늘보〉
유상현 감독

단편영화인의 밤에 참석한 소감은?

개막식 리셉션이 거대한 잔치 같아 어렵다면, 한국단편영화인의 밤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감독들끼리 모여 있어 좀 더 편하고 부담이 없다. 김세윤 프로그래머님이 특히 감독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즐겁게 해주신다.(웃음)

FEATURE

Film Festivals and Their Importance

Film Festivals Matter!! There, I've said it. With a certain festival further south of Bucheon finding itself almost gone from the festival calendar before recently returning to the fray, the positive vibe surrounding this years BIFAN has reminded me of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film festivals make to the lives of filmmakers and the wider community. Film Festivals are entities that do more than just showcase films from around the world and local city governments sensible enough to support such festivals know exactly what I'm talking about.

Film director CHRZU (Night Satan 2013) states that "Festivals are so important because a lot of films that are {at the festivals} are not in big cinema distribution. The festivals are there to lift these gems, they want to show you these films that you won't get to see anywhere else for a while but now you get a chance to see it on the silver screen." As each festival has its own identity and purpose, there's a chance for the public to be exposed to various cinematic experiences. Jecheon's International Music and Film Festival brings a spotlight to music in films while genre films dominate BIFAN. Both festivals display new and old films that many would find difficult to access another way. I can tell you from my experience and time as a critic that not all great films reach your local cinema. Festivals are often the only way to see the best of the cinematic art form.

Opportunities at film festivals to network, collaborate, find funding and prospective work are incredible. Larger festivals host events allowing for meetings to happen casually before

more formal meetings are arranged. From January's Sundance festival to Wellington's November film festival, many future movies will be brokered and conceived on festival grounds. BIFAN placed a lot of effort into their BIFAN Industry Gathering program where filmmakers new and old got to mingle together under a variety of events & forums. As Finnish film producer Jupe Louhelainen points out, "From a business sid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eet different people. Our case as an example, meeting distributors and foreign agents. Otherwise we have to contact everyone by email it would be a hell of a lot more work ... the cocktail invitational held yesterday was very important because I got to know 6 new peopl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whilst pitching our film to them." New co-productions and local productions triggered from networking will bring about new job opportunities feeding the economy and this has a bigger impact than just the filmmakers. Every film needs catering, advertising, equipment rental, design staff, costuming etc. making the follow on effects from one successful meeting significant to the lives of many.

What's the first thing you think of when someone says Cannes? Probably the film festival and not the lovely museums it has to offer. Bringing cultural identities to cities, festivals also bring revenue through the amount of visitors from home and abroad, fueling local businesses from restaurants to department stores. The tourism industry gets a boost from international guests who need hotels and transportation. Fans rush to film festivals as their favorite stars and directors come out. And with international media in attendance it's a great way for cities to show off and add pride to their yearly achievements. Smart investments to film festivals by local governing bodies can only bring about rewards for all of us. Bucheon can take pride in BIFAN for hosting a record amount of screenings this year, spearheading new media with Screen X and the VR Dome and also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dustry gatherings. Freedom of expression in all forms including cinematic art and the wide reaching positives it brings can only be summarized here. But yes, "Film Festivals Matter".

Chocoshrek



REVIEW

A Friendship For All Occasions: Swiss Army Man

Actor Daniel Radcliffe has consistently sought to reinvent himself since the Harry Potter series ended, with his turn as a super-powered flatulent corpse in Swiss Army Man the latest impressive attempt to stretch himself into new directions. While the film received a mixed reception at its Sundance premiere, seemingly largely due to the use of fart gags, Swiss Army Man is a wonderfully quirky and humorous film that has a dark yet surprisingly uplifting message about contemporary loneliness at its core. When Hank (Paul Dano) becomes stranded on a desert island, he loses all hope and prepares for suicide. Yet just as he is about to do so, Hank spies a body that has washed up on the beach, a corpse that he quickly discovers has special abilities that prove extremely useful. Naming him Manny (Radcliffe), the duo work together to survive and return to civilisation. Writers/directors Dan Kwan and Daniel Scheinert have crafted a wonderfully funny film in Swiss Army Man, one which combines macabre body comedy and themes of alienation into a uniquely entertaining buddy road trip. The jokes regularly induce laughter, with juvenile gags employed to great effect as they serve to generate a deepening bond between Hank and Manny.

Yet while the eccentric comedy serves to uplift audiences, beneath the jokes is a touching story of modern relationships. The film gently examines the loneliness felt by the younger generations and the psychological instability it incur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companionship.

Funny and affecting, Swiss Army Man is an original and hugely entertaining film, one that solidifies Kwan and Scheinert's position as talents to watch.

Simon McEnteggart

INTERVIEW

Chatting With New Zealand Filmmaker Steven Baker



New Zealand filmmaker Steven Baker, who won here at BIFAN in 2015 with his short film "A Love Story" is back at the festival for a different reason.

What brings you to BIFAN?

I have a project here called "Black Rock" which is a part of NAFF's "It Project" and I am pitching it to various producers and other people in the film industry. (*It Project, which began as the feature program of NAFF in 2008, is the world's first-ever exclusive genre film project market.)

What is the importance of NAFF to filmmakers such as yourself?

For me because I'm from New Zealand it's great because I get to talk to other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alk to different people outside my own circle of influence and network and make connections I normally wouldn't get back home. It's a chance to meet peop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ich is probably the best thing about it.

Please tell us about your project.

I had a short film here last year. It won the Jury Choice award. I adapted it into a feature film and that's what I've brought here. It's a zombie apocalypse film about a woman trying to get out of New Zealand before it's too late while being hunted by safari hunters who want revenge.

What have you enjoyed most at BIFAN this year?

Last time I was here just with a film. It was a lot more relaxing and I got to watch films. This year is a bit more stressful because of the meetings involved but it's been fun because I've been able to meet people in the industry who can make things happen and that's something I didn't get last year. Making those connections and meeting other filmmakers and seeing their projects and making friends has been the best thing about it.

Chocoshrek

SCHEDULE

영화명 원제 | 등급 | GV | 예매코드 | 극장

1회차 폴리스 에보 Polis Evo | 11:30 | ⑤ | 701 | SS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 참여 Self-Referential Traverse: zeitgeist and engagement | 12:00 | ⑥ | CH 뷰티 오브 더 데빌 The Beauty of the Devil | 11:50 | ② | 702 | FC 레드헌트 Red-Hunt | 12:00 | ② | HYU2 64파트 1 64 PART 1 | 11:30 | ⑤ | 703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 11:30 | ⑤ | GV | 704 | HYU4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 11:30 | ② | GV | 705 | HYU5 패티와의 스물 하룻밤 21 Nights with Pattie | ⑧ | 706 | HYU6 켄과 카즈 Ken and Kazu | 11:30 | ⑤ | GV | 707 | HYU7 데브다스+살인의 막장: 숨가막 살인마 Devdas+The Horribly Slow Murderer with the Extremely Inefficient Weapon | 11:50 | ② | 708 | HYU8 서브웨이 Subway | 11:30 | ⑤ | 709 | BST3 굿 맨 A Good Man | 11:30 | ⑤ | GV | 710 | BST4 결혼이야기 Suamiku, Encik Perfect 10 | 11:30 | ⑤ | 711 | BST6 내부자들 Inside Men | 11:00 | ⑧ | 712 | KM **2회차** 몬스터 헌트 Monster Hunt | 14:30 | ② | 713 | SS 판토퍼 위기탈출 Fantomas | 14:30 | ② | 714 | CH 추격자+汗(汗) The Chaser+Sweat | 14:50 | ⑧ | 715 | FC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 14:50 | ⑧ | 716 | HYU2 64파트 2 64 PART 2 | 14:30 | ⑤ | 717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 14:30 | ⑤ | GV | 718 | HYU4 이도공간+열 개의 계단 Inner Senses+The Ten Steps | 14:30 | ② | 719 | HYU5 리자의 달콤살벌한 연애 Liza, the Fox-Fairy | 14:00 | ⑤ | 720 | HYU6 종말의 아이 Apocalypse Child | 14:30 | ⑤ | GV | 721 | HYU7 그랑블루 The Big Blue | 15:40 | ⑤ | 722 | HYU8 마스터 클렌즈 The Master Cleanse | 14:30 | ② | 723 | BST3 싸이코 라만 Psycho Raman | 14:30 | ⑧ | 724 | BST4 로카 라퀴 Hang in There, Kids! | 14:30 | ⑤ | 725 | BST6 셸리 Shelley | 14:00 | ⑧ | 1701 | OA 피닉스 라이트 사건 The Phoenix Incident | 14:00 | ⑤ | 1702 | SH **3회차** 모페 삼용사 The Three Warrior Impostors | 17:30 | ② | GV | 750 | SS 사칠리아 햇빛아래 Never Said Goodbye | 17:30 | ⑤ | 726 | CH 마이 파파 리치 My Papa Rich | 17:50 | ② | 727 | FC 라울로 살인사건의 전말 The Rotten Link | 17:50 | ⑧ | 728 | HYU2 치하야후루 파트 1 Chihayafuru Part 1 | 17:30 | ⑤ | 729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 17:30 | ⑤ | GV | 730 | HYU4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 17:30 | ⑤ | GV | 731 | HYU5 장강도 Crosscurrent | 16:30 | ⑤ | GV | 732 | HYU6 더 시크릿 The Secret | 17:30 | ⑤ | 733 | HYU7 맨하탄 녹턴 Manhattan Nocturne | 17:30 | ⑤ | 734 | BST3 팬데믹 Pandemic | 17:30 | ⑤ | 735 | BST4 집으로 데려다줘 Take Me Home | ⑤ | GV | 736 | BST6 **4회차** 괴물의 아이 The Boy and the Beast | 20:30 | ② | 737 | SS 세상에서 고양이 사라진다면 If Cats Disappeared from the World | 20:30 | ② | GV | 738 | CH 마신자-빨간 옷 소녀의 저주 The Tag-Along | 20:50 | ⑤ | 739 | FC 곡성 The Wailing | 20:00 | ⑤ | 740 | HYU2 치하야후루 파트 2 Chihayafuru Part 2 | 20:30 | ⑤ | 741 | HYU3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 20:30 | ② | GV | 742 | HYU4 큐브+할로우 씨 사건의 진실 Cube+The Facts in the Case of Mister Hollow | 20:30 | ⑤ | 743 | HYU5 니키타+메가토크 Nikita+Mega Talk | 20:00 | ⑤ | GV | 744 | HYU6 마냥 비림의 크리스마스 Manang Biring | 20:30 | ② | GV | 745 | HYU7 카르멘 Bizet's Carmen | 20:00 | ② | 746 | HYU8 저주받은 결혼식 Demon | 20:30 | ⑤ | 747 | BST3 쿠로사키군의 말대로는 되지 않아 The Black Devil and the White Prince | 20:30 | ② | 748 | BST4 미성년 범죄 집단 Haze | 20:30 | ⑧ | GV | 749 | BST6 **5회차** 키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 The Kirishima Thing | 20:00 | ⑤ | 1703 | OA 그랜드파더 Grand Father | 20:00 | ⑤ | 1704 | SH

등급 Rate

⑤ 전체 관람가 General ⑫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⑳ 19세 이상 관람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SS 송내술안아트홀 CH 시청 어울마당 FC 시청 판타스틱 큐브 HYU2 CGV부천 2관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HYU8 CGV부천 8관 BST3 CGV부천역 3 BST4 CGV부천역 4 BST6 CGV부천역 6 KM 한국만화박물관 SH 소사구청 소향관 OA 오정구청 오정아트홀

※상영일정은 영화제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IFAN

영화제
멀티 플레이어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램팀
코디네이터 정유진, 이나경

이나경, 정유진(왼쪽부터).

극장에서 항상 마주친다. 프로그램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정유진 개막 전에는 상영될 영화들을 섭외하고 자료 수집을 한다. 영화제 기간에는 GV와 토크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윤종신, 하지웅, 이동진 등의 게스트가 참여한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 행사를 담당했다. 이나경 국내 단편 초청행사와 특별전 '고몽: 영화의 탄생과 함께한 120년' 행사 진행을 맡고 있다.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

정유진 잘하고 싶은데 실수할 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이나경 종일 전화기와 씨름 하다 보니 귀에 물집이 생겨 피가 났다. 지금은 괜찮다. (웃음) 행사 진행 시간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게스트를 안내하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정유진 예정을 넘긴 밤 12시 이후까지 GV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감독님께서 질문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시고, 끝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셨다. BIFAN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지켜보는 우리도 기뻐다. 이나경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다. (웃음)

글 김은솔 객원기자 · 사진 권영탕

CINSTAGRAM



김수빈



...

VR 호러 영화 <카타토닉>을 보다가 고글을 쓰면 바로 그곳이 정신병원이 되고 좀비가 몰려온다. 직접 감상하는 것도 재밌지만, 감상 중인 사람들 구경은 더 흥미진진. VR Dome 안을 가득 메운 #괴성 #헛발질 #폭소



권영탕



스무 번째 BIFAN 마감의 끝이 보인다. 히로세 스즈의 기운을 받아 마감까지 고고! #히로세 스즈를 내가 찍었어야 했는데 #스즈짱의 치하야후루 개봉축구기원♥♥

황토방에서 빛어

더욱 깊은 맛과 그윽한 향이 가득한 부드러운 그맛!



소성주는

인천탁주의 대표 막걸리입니다.

- 상품명: 소성주
- 원재료: 백미90%, 전분당 10%
- 규 격: 알콜분 6도
- 용 격: 750ml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 이하에서 10일까지



NIFK SOSUNGJU

“ **하이엔텍**은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를 후원합니다 ”

환경선진강국! 하이엔텍이 함께합니다



하이엔텍은 공공 하·폐수처리, 산업폐수, 정수 및 재이용 등의 수처리 사업과 대기오염방지,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환경시설 전문 O&M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iEntech
LG affiliated company

History

2015	1월 천진시발해환경공그룹합작	2008	5월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시설 산업환경설비공사사업 면허등록
	6월 ISO 14001 획득		6월 주식회사 금호환경기술 사명 변경
2014	6월 토목공사사업 면허등록	2003	6월 오수 처리시설관리업 면허등록
	11월 OHSAS 18001 획득		12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3	1월 중국 천진수처리 법인 설립	2002	2월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면허등록
	3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공공하수도)등록		11월 전기공사사업 면허등록
	6월 중국 환경보호시설 운영 면허증 획득		12월 철물공사사업 면허등록
	7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거) 등록	2001	
2011	11월 (주) LG전자 자회사 편입		3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면허등록
	주식회사하이엔텍 사명 변경		6월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면허등록
2010	4월 주식회사대우엔텍 사명 변경	1999	10월 주식회사삼은물지킴이 법인 설립